

◎ 建設經濟 受注 11조8천억 · 큰 幅 伸張

具 進 謨

〈大韓建設協會 振興部 部長〉

1. 88년의 建設業 動向

1988년에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제 6 공화국을 탄생시켜 민주화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적 행사로서는 제 24회 하계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이 88서울올림픽을 開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는 16번째, 東洋圈에서는 두번째의 개최국이 된 것이다. 이 올림픽開催를 위하여 모든國民이 舍心舍力을 기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도 건설업자들은 올림픽개최에 필요한 主競技場과 補助競技場, 便宜施設과 附帶施設 등을 建設하는데 직접 참여하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都市再開發事業에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올림픽史上 가장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88년 국내경제는 經濟成長率이 11.5%에 달할 것이며 國際收支上의 經常收支黑字規模는 작년의 98억 5천만 달러에 이어 130억 달러 内外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國內建設景氣도 成長勢를 持續, 88년 建設工事 總契約額규모는 약 9조 9,500억원 内外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년에 비하여 13.6% 증가한 것이다. 이 계약액 가운데 公共部門 즉 政府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 등에서 發注한 工事は 4조 5,1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고

民間部門은 5조 4,400억원에 달하여 전년보다 약 30%의 증가를 보였다.

88년의 發注機關別 契約額規模에서 特徴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總契約額 가운데 民間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 折半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推進해온 이후 85년도에 이르기까지 公共部門의 比重이 初期에는 절대적 比重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8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86년과 87년에는 公共·民間이 거의 折半(民間比重이 86년 49.95%, 87년 49.73%)씩을 차지하던 88년에 와서는 民間部門의 比重이 54.68%를 차지함으로써 比重優位의 位置가 86, 87년을 轉換點으로 하여 바뀌어가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의 經濟體制가 政府主導型에서 民間主導型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逆說的인 意味로 바꾸어 評價한다면 이것은 政府統制下의 經濟規模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規模도 市場機能에 의하여 運營·統制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더욱 尨大해질 것이다. 결국 經濟體制가 民間主導型으로 발전·成長해 나갈 때에 餘他部分인 政治, 社會 등 모든 部門에서 자연스럽게 民主化로의 進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88년도 政府事業가운데 完工事業으로는 首都圈(Ⅲ)廣域上水道事業, 南江系統廣域上水道

事業, 太白圈廣域上水道事業, 全州圈綜合開發事業, 美湖川地區開發事業, 湖南復線建設事業 및 安山復線電鐵建設事業 등이며 88년도 新規事業으로 着手한 事業은 蟾津江系統廣域上水道事業, 錦江洪水豫警報施設事業, 大田 2次·全州 2次·水原 등의 都市下水道事業, 和順北面下水道, 漢沙里下水道, 회야댐上流下水道, 溫山工業基地支援助路建設事業 및 職業訓練大學建設事業 등이었다.

다음으로 88년 建設業動向 가운데 特記할 만한 事件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87년 12월의 大統領選舉와 88년 4월의 國會議員選舉 및 民主化 過程에서 惹起되는 소위 勞使紛糾 등으로 인하여 勞賃單價가 引上되었으며 國際原資材價格의 騰貴로 國內 主要建設資材價格도 引上패 88년 建設Deflator가 前년에 比하여 10% 内外는 높아졌다고 하겠다.

國內 建設物量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海外工事受注의 激減으로 企業規模에 適正한 物量確保가 어려워짐에 따라 建設業界에서는 經營多角化戰略을 추진하고 있는 바 主要參與業種으로는 호텔, 觀光·레저 流通, 運送, 빌딩賃貸業 등이며 이러한 業域擴大戰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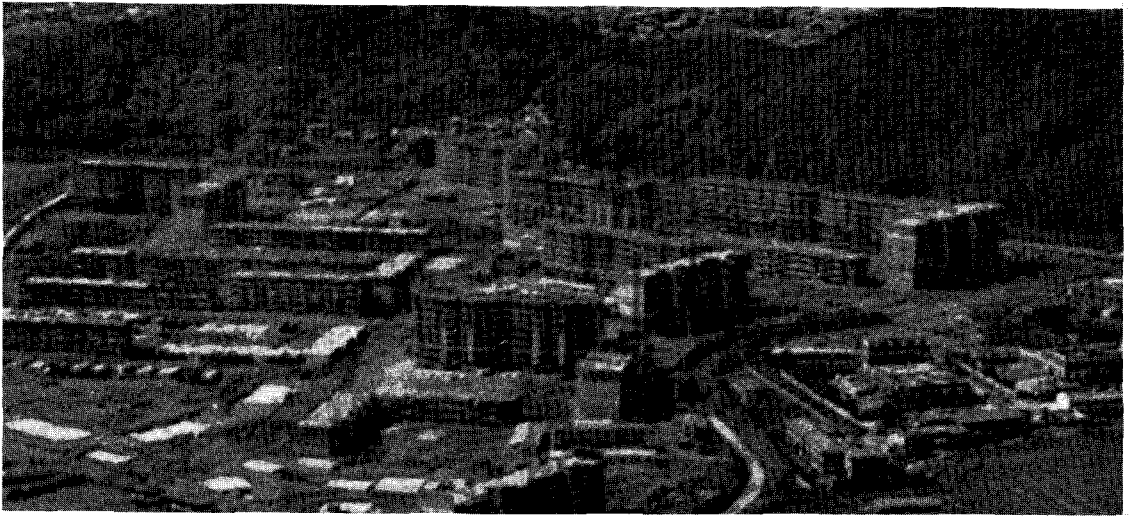
지난 4월말경 우리나라의 現代建設이 日本 오사카 都心地域內 4,500 坪의 商街부지에 들어설 백화점·호텔 및 아파트 등의 복합건물에 대한 設計契約을 재일고포인 建築主와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日本建設市場進출을 위하여 三星建設, 現代建設, 大字 및 三煥企業이 日本建設省大臣으로부터 建設業特認을 받았으며 이어 10월 日本東京都로부터 建築·土木 등 2개분야의 建設業免許를 각기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極東建設 등 7個社도 特認申請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광림종합건설, 울산건설, 광휘기업, 선주종합건설, 고려종합건설, 세화건설 및 신흥산업 등 建設業免許失效處分에 따라 7個社나 業體數減小현상이 있었다.

한편 1985년 下半期 以後 3高時代의 到來와 함께 國際收支의 黑字轉換 등에 힘입어 86년 下半期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不動產 景氣의 회

복은 88년에 와서는 급기야 不動產 景氣過熱로 발전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8월 10일 不動產綜合對策이라는 소위 「8·10 措置」인 抑制對策을 發表하였다. 이는 올림픽 이후의 不動產價格上昇의 期待心理를 拂拭하고 根本的인 不動產 去來制度를 整備하며 土地公概念의 國民的 合意擴散과 土地制度의 段階的 改革을 위하여 내린 措置이긴 하나 거의 쇼크요법에 가까운 조치이기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不動產景氣의 회복에 急冷化를 惹起시키는 原因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소위 不動產抑制對策은 지난 1978년에 있었던 「8·8 措置」 이후 10년만에 다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하겠다. 「8·10 措置」의 主要內容으로는 우선 88년 下半期對策으로는 ① 去來規制의 內實化로 正常去來 誘導 ② 地價體系의 一元化 推進 ③ 住宅價格의 安定對策 등을 들 수 있으며 向後的 계속적 推進課題로는 ① 綜合土地稅制의 導入 ② 開發利益還收制度의 導入 ② 土地公概念의 擴大推進(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設置·運營) 등을 例示할 수 있다.

그리고 地域間의 工事物量이나 受注與件의 不均衡으로 특히 서울소재업체들이 地方으로 移轉하는 例가 많다. 즉 87년에는 15個社, 88년 10월말까지도 10個社가 地方으로 移轉한 실정인 바 일반면허 및 특수면허를 所持한 建設業體數가 80년말에는 총 517個社중 서울소재업체가 287個社로 55.5%를 차지했었으나 88년 10월말 현재로는 全業體가 468個社로 이 가운데 서울소재업체가 186個社로서 전체중 39.7%를 차지하고 있어서 80년에 比하여 그 비중이 15.8% 포인트나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소재 건설업체들이 계속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理由로는 地域制限制度의 實施 이후 계속 그 上限規模를 上向調整(현재 10억원 以下) 함으로써 地方工事受注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89년부터 施行豫定인 地方自治制의 導入에 따라 地方工事受注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地方移轉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8 년도에 觀光産業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지난 9월 1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연안에는 107 톤급 海底觀光 잠수함 “마리아3호”를 취항시킴으로써 해저관광의 새장을 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해저관광은 물론 海底産業을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先進國에서는 이미 앞으로의 新産業으로는 宇宙, 海洋 및 地下開發事業이 主要事業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에 대한 技術開發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의 海底觀光의 첫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特記事項들이 앞으로의 건설경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89 년도의 建設景氣 展望

1989 년은 80 년대를 장식하는 마지막 해로서 제 6 차 經濟社會發展 5 年計劃의 3 次年度이며 제 2 차 國土綜合開發 10 年計劃 추진의 8 次年度가 되는 해이다.

따라서 89 년도의 對外的인 經濟·社會的 與件으로서 먼저 世界經濟는 先進國間에 貿易不均衡의 持續, 國際金利 및 物價上昇 등의 영향으로 今年보다 上昇勢는 다소 鈍化될 전망이며 世界交易伸張率도 선진국의 경기상승 鈍化에 따라

下落이 불가피할 것이다. 國際原油價格의 전망은 불투명하나 현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88·89 년 우리경제의 모습
(韓銀과 KDI 전망)

<表-1> (單位: %)

총 량	89		88	
	韓銀	KDI	韓銀	KDI
GNP성 장 륜	8.2	8.5	11.7	11.5
GDP성 장 륜	7.5	-	10.8	-
총 소비 증가율	8.1	8.0	7.7	8.2
고정투자증가율	13.3	9.1	11.2	10.5

(單位: 억원)

무 역	89		88	
	韓銀	KDI	韓銀	KDI
경 상 수 지	98.0	90.0	132.2	125.0
무 역 수 지	80.0	70.0	105.2	94.0
수 출	685.0	670.0	588.7	585.0
수 입	605.0	600.0	483.5	491.0
무역외및이전(純) 수 지	18.0	20.0	27.0	31.0

(單位: %)

물 가	89		88	
	韓銀	KDI	韓銀	KDI
도 매 물 가	2.7	2.8	1.9	2.7
소 비 자 물 가	5.7	5.5	6.5	6.8
GNP 디플레이터	4.1	4.0	4.6	4.1

89년도 政府의 完工事業

<表-2>

(單位: 억원)

事業名	事業期間	總事業費	87 既投入	88 豫算	89 豫算(案)	增(△)減
1. 釜山港 一般事業	81 ~ 89	123	80	30	13	△ 17
2. 達芳댐 建設	86 ~ 89	212	55	74	63(국고채 20)	△ 11
3. 春川 下水處理場	85 ~ 89	129	66	31	32	1
4. 大田 下水處理場(Ⅱ次處理)	88 ~ 89	42	-	12	30	18
5. 全州 下水處理場(Ⅱ次處理)	88 ~ 89	36	-	10	26	16
6. 九里 下水處理場	85 ~ 89	88	45	25	18	△ 7
7. 回夜댐上流 下水處理場	88 ~ 89	74	-	30	44	14
8. 麗川工業基地	87 ~ 89	164	38	62	44(국고채 20)	△ 18
9. 금강 하구둑 建設	83 ~ 89	927	685	84(50)	108	24
10. 論山地區 農業開發	78 ~ 89	932	764	127	41	△ 86
計		2,727	1,733	485	419	△ 66

註: ()는 88 追更豫算

89년도 政府의 新規事業

<表-3>

(單位: 억원)

事業名	事業期間	總事業費	89 豫算
1. 群山新港	89 ~ 93 以後	5,545	25
2. 馬山港 擴充	89 ~ 92	87	13
3. 首都圈廣域上水道(Ⅳ)	89 ~ 93	1,760	126
4. 住岩댐系統廣域上水道	89 ~ 93	656	53
5. 龍仁 下水處理場	89 ~ 91	55	5
6. 原州 下水處理場	89 ~ 92	150	10
7. 堤川 下水處理場	89 ~ 92	92	5
8. 天安 下水處理場	89 ~ 92	124	11
9. 裡里 下水處理場	89 ~ 92	117	10
10. 東豆川 下水處理場	89 ~ 92	96	3
11. 錦江綜合治水事業	89 ~ 94	1,016	26
12. 牙山工業基地 1 段階 港灣	89 ~ 92	1,800	36
13. 群山產業基地用水	89 ~ 91	187	12
14. IBRD 6次 借款道路	89 ~ 92	3,656	200
15. 全州圈開發事業(Ⅱ)	89 ~ 93	2,207	50
16. 미호천(Ⅱ) 地區 農業開發	89 ~ 94	791	20
17. 錦江(Ⅱ) 地區 農業開發	89 ~ 2004	4,159	20
18. 榮山江 방조제(Ⅲ-2) 築造	89 ~ 93	411	20
19. 全羅線 改良	89 ~ 95	2,563	10(國庫債 10)
20. 嶺東線 電鐵化	89 ~ 91	260	7
計		25,726	662

로 예상되며 國際金利는 미국 등 主要國의 인플레이抑制對策을 위한 金融緊縮에 따라 완만하게上昇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國內與件에 있어서 우리 經濟는 원貨切上 및 賃金引上 등으로 輸出增加率이 상대적으로 鈍化되면서 그동안의 높은 成長에서 安定的 成長으로 調整되는 局面에 進入할 것이며 國際收支黑字도 輸出增加率의 둔화에 따라 금년보다 다소 축소될 것이다. 賃金上昇과 海外部門의 通貨增發 등으로 物價不安要因이 증가하고 各部門間의 發展格差 縮小과 成長果實의 衡平配分에 대한 國民들의 欲求와 期待는 한층 顯在化할 것이며 따라서 經濟運用面에서는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國民의 福祉欲求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適正成長率의 유지가 最大課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89년도 經濟運用의 基本方向을 經濟安定基調를 保持할 수 있는 健全財政原則을 堅持하고 農漁村 및 低所得層에 대한 福祉施策을 強化하며 落後部門 및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投資支援을 擴大하는 등으로 集約하고 있다. 89년도 政府豫算編成의 重點도 農漁村 低所得層 등의 落後部門에 대한 劃期的인 支援擴大와 地方化時代의 展開을 위한 財政支援의 強化, 産業體質強化로 成長潛力 培養, 財政機能의 再定立과 制度改善 등을 重點課題로 삼고 이를 豫算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國土開發建設의 主務部處인 建設部는 89년도 重點의 事業目標로 國土의 均衡開發 促進, 國民福祉의 向上 및 生活環境改善, 水資源의 活用提高 및 災害豫防의 徹底, 經濟發展을 위한 産業基地의 建設支援 및 建設技術開發을 위한 研究事業의 支援 등에 두고 있다. 특히 建設部豫算 가운데에는 89년도 道路事業特別會計(예산 규모: 1 조 931 억여원)를 新設하여 推進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이 建設需要로 크게 유발될 것이다.

이와 같은 國內外 經濟與件 造成에 따라 建設景氣도 88년에 이어 '89년도에도 伸張勢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89년도의 國內 建設工事 總豫想受注規模는 대략 11 조 8 천억원 규모에 달해 前年에 비하여 名目上 18 % 内外의 增

加率을 나타낼 것이며 物價上昇分을 감안한 實質增加率도 10 % 内外로 예상된다. 이러한 總受注 豫想額 가운데 公共部門은 47.9 %를 접하는 5 조 6,549 억원, 民間部門은 全體中 52.1 %를 차지하는 6 조 1,451 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前年對比 각기 25 %, 13 %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民間부문의 비중이 公共部門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民間主導型 經濟體制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강해지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이 89년도에도 建設景氣의 伸張勢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 88 서울올림픽開催後의 國內景氣가 沈滯局面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인 판단이었으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東西間의 關係改善 분위기조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國內經濟는 伸張勢의 지속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建設景氣에 好材로 作用할 수 있는 重要 要因들을 例示함으로써 建設景氣의 지속적 伸張에 대한 要因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① 88 서울올림픽이 東西和解霧圍氣 속에서 성공적으로 開催되고 이의 餘波로서 헝가리와 經濟交流和 諸般關係改善을 비롯하여 中國·蘇聯 등 東歐圈과의 關係改善 조짐이 확대됨에 따라 이것이 國內經濟를 크게 伸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지역에 대한 海外建設 進出이 가능시 됨으로써 建設業界로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란·이라크간의 終戰소식은 이 지역에서의 戰害復舊事業이 활발해져 해외건설수주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② 한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海外建設이 이란·이라크간의 終戰과 더불어 美國 등 美州地域 進出과 日本國內에서 우리 대형건설업체들이 建設業免許를 이미 취득했거나 特認申請中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의 受注增加를 예상할 수 있다.

③ 第6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89년도부터는 地方自治制 實施를 豫告하고 있는 바 이것이 地域開發의 活性化로 이어져 建設物量의 증가를

89년도 建設部 事業別 豫算規模

(單位: 百만원)

<表-4>

事業別	88 豫算		89 豫算(案)		增(△)減 (A-B)	對 比 (%)
	(A)	構成比(%)	(B)	構成比(%)		
計	1,529,732	100	2,310,313	100	780,581	51.0
上·下 水 道	218,359	14.3	191,365	8.2	△ 26,994	△12.4
上 水 道	145,443	9.5	121,196	5.2	△ 24,247	△16.7
下 水 道	72,916	4.8	70,169	3.0	△ 2,747	△ 3.8
住 宅	281,618	18.4	427,705	19.1	146,087	51.9
地 域 社 會 開 發	42,103	2.7	40,253	1.7	△ 1,850	△ 4.4
國 立 公 園 開 發	24,801	1.6	28,230	1.2	3,429	13.8
多 目 的 埠 建 設	156,759	10.3	115,599	5.4	41,160	△26.3
治 水 및 災 害 對 策	103,678	6.8	119,668	5.1	15,990	15.4
產 業 基 地 支 援	111,020	7.3	85,594	3.7	△ 25,426	△22.9
道 路	564,569	36.9	1,267,342	54.2	702,773	124.5
國 土 計 劃 調 查	11,377	0.7	15,862	0.7	4,485	39.4
技 術 開 發	3,261	0.2	3,654	0.1	393	12.1
建 設 行 政	12,187	0.8	15,041	0.6	2,854	23.4

유발하게 될 것이다.

④ 對中國 交易擴大와 地域間의 均衡發展政策의 積極적 施行에 따라 西·南海岸地域의 開發事業이 계속 擴大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비롯하여 產業施設, 觀光施設에 대한 投資需要가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

⑤ 우리나라의 產業政策이나 패턴이 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더불어 60년대에는 輕工業, 70년대에는 重化學工業, 80년대에 와서는 半導體 등의 電子産業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尖端産業化로 進展되고 있음에 비추어 다시 말하면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經濟規模의 擴大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 필요하게 될 것인 바 이에 따른 追加投資需要가 建設需要로 顯在化할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⑥ 所得水準이나 文化水準이 向上되면서 市民의 欲求가 증대되는 것은 餘暇善用을 비롯한 觀光需要의 增大이다. 이것이 觀光資源施設 및 便宜施設과 附帶施設의 投資需要를 增大시킬 것이므로 이것도 建設수요로 유발될 것이다.

⑦ 建築物의 自動化(Building Automation)와 인텔리전트화(Intelligent Building) 추세와

함께 既存建築物에 대한 새로운 機能賦與를 위한 改·補修에 대한 需要增大가 예상되므로 이것이 建設수요패턴을 더욱 高級化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建設경기의 好材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⑧ 交通手段의 발전과 都市의 大型化 추세에 따라 道路網의 改善이 필요하게 된다. 즉 서울의 경우 「2000년대 서울都市基本計劃」에 의하여 現在 4個 地下鐵路線을 13個路線으로 擴大建設할 計劃이며 餘他 大都市에서의 地下철건설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東西高速電鐵의 建設計劃을 비롯하여 87년 현재 全國道路網의 鋪裝率이 57%에 불과함에 따라 이를 2001년도는 90% 수준까지 改善한다는 計劃下에 89년도 建設部豫算에 道路事業特別會計를 新設하여 運營할 豫정에 있다.

이러한 好材들이 앞으로의 建設景氣에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中·短期的인 측면에서의 建設景氣는 지속적인 伸張勢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建設업체로서는 財務構造의 改善, 科學的 經營技法의 導入·活用은 물론 施工技術의 改善이나 大型建設業體들의 綜合産業化로의 進展 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